

무사고 환급에 시세하락 보상까지 보험사 車보험 ‘착한 특약’ 승부수

손해율 급등에 업계 전반 적자
특약 경쟁으로 정면 돌파 시도
삼성·한화, 환급·할인형 확대
롯데는 ‘앨리스’로 디지털 공세

손해율 급등과 보험료 인하로 업황이 악화되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보험사들이 오히려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신규 특약을 속속 출시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포인트(p) 급등한 수치다. 또한 최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인하하면서 손해율은 지속 악화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입 감소와 손해를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536억 원 감소한 9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보사가 다양한 특약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이미지.

자동차보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를 넓힌 신규 특약과 상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부터 4종의 신규 특약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추가했다. 지난 2월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고 3월에는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 4월에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

발됐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주행거리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10% 이상 감축하면 보험계약 종료 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5%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5%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은 자동차 운행량 감소를 유도해 사회·환경적 가치 생성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ESG경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모바일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인 ‘let:click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소액·단기 보험 판매에 집중하던 앨리스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탑재했다.

앨리스 자동차 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앨리스가 먼저 최적의 플랜을 제안한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고객에게도 다른 보험사의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조건을 제안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앨리스에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암·뇌심 보험 탑재에 이어 자동차 보험까지 담아 디지털 보험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건설경기 회복	8122억원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및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도로안전시설 보강 (가드레일 구축, 설해대응, 안전시설물 등 931억원)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신호시스템 설치, 도시철도 무선망 교체, 역사·노후교량 개량 등 2303억원)
---------	--------	--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8122억 투입

국토부 추경예산 1조1352억 확정 건설경기 회복+재난·재해 대응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정된 1조1352억원 규모의 건설 관련 추경예산 가운데 70% 이상인 8122억원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는 수년간 지방 중심의 수주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올해 건설투자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활력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 실적은 작전 분기 대비 3.2% 감소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p) 끌어내렸다.

관련 추경예산 편성은 도로 철도 등 건설과 유지보수·사회간접자본(SOC)에 3234억원, 신축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

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정부안보다 7996억원이 많은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 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예산은 건설경기 지원 외에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3356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한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78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토록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KDB·신한 등 생보사 요양사업 경쟁 본격화

이달 수도권에 요양원 줄줄이 개소
데이케어·입소형 다양화 전략 눈길

올해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사업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KB라이프 생명과 KDB생명, 신한라이프도 경기 하남에 새 요양원을 연내 개소할 계획이어서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서울 은평구에 준비 중이던 ‘은평 빌리지’ 개소 시점을 당초 지난 4월에서 5월로 늦췄다. 내부 공사를 보완해 완성도 높은 시설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은평 빌리지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만

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정원 144명 규모다.

KB라이프는 앞서 2017년 ‘위례 빌리지’, 2021년 ‘서초 빌리지’, 2023년 ‘평창 카운티’ 등을 차례로 개소해 도심형·프리미엄 요양시설 사업을 확장해 왔다. 올해는 은평 빌리지를 시작으로 8월 ‘광교 빌리지’, 10월 ‘강동 빌리지’ 등 연이어 요양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KDB생명도 5월 중 경기 고양시에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고 요양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데이케어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고령자를 통원시켜 운동·재활·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하루 단위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DB생명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관련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5월 수도권(고양시)에 데이케어센터를 연 뒤 올해 안으로 광주광역시에도 추가 센터를 마련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보사 요양사업 2인자로 꼽히는 신한라이프 역시 올해 안으로 경기 하남에 요양원을 개소할 예정이다. 정원은 64명으로 오는 7월 이후 입소대기 신청을 진행해 12월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분당 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해 요양시설 운영 노하우를 쌓은 바 있다.

/김주형 기자



지난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한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뒷줄 왼쪽 두번째)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세번째)이 아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B금융,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만든다

직장어린이집 아동 대상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한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 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릿위에 똥쌌어?’를 관람하고 풍선 아트와 빼빼로 공연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173명에게 수제 쿠키 세트와 ‘KB스타

프렌즈’ 캐릭터 돗자리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했다.

양 회장과 이 행장도 직접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성장을 응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목표로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과 돌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며 저출생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출산·육아 등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안정을 통해 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저출생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카드 News

삼성카드-코레일

제휴카드 출시 등 전략적 업무협약

삼성카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제휴카드 출시 등을 위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승차권 구매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올 하반기에는 철도 분야 특화 제휴카드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니모’에 열차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코레일톡’에는 모니모 간편결제를 도입하고 생체인식과 비밀번호 등 인증 방식을 통해 승차권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카드

2025 소비자 패널 선발·발대식

현대카드는 ‘2025 현대카드 소비자 패널’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비자 패널은 1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했다. 총 21명이다. 10대와 시각 장애를 가진 회원을 패널로 선정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체험과 인터뷰, 자료 조사 등 정기 과제를 수행한다. 모니터링과 온·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